

일제 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전적지*

趙 誠 倫**

1. 머 리 말
2. 연구의 과제와 조사 방법
3.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과 전투준비
4.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5. 맺 음 말

1. 머 리 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5년 봄부터 제주도에 많은 일본군이 주둔하여 연합군의 공격을 예상하면서 본토결전(本土決戰)에 대비하였음은 이제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44년 말 일본군은 「결호작전(決號作戰)」이라는 일본 본토 방어 작전을 수립했는데, 그 중에 제주도는 「결7호작전(決7

號作戰)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¹⁾ 작전 수행을 위해 1945년 8월까지 7만여 명의 일본군이 들어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의 임무는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제주섬 전체를 요새화 하는 것이었다.

제주도에는 일제 말기 일본군이 조성해 놓은 거대 군사시설이 지금도 곳곳에 남아 있는데, 비행장, 포대, 참호, 훈련장 및 감시초소, 대피소, 비행기 격납고, 탄약고, 폭탄매립지 등 군사시설의 거의 모든 것이 포함된다. 그 밖에도 한라산 증터에 '머리머를 두른 형국'이라는 뜻에서 '하치마키(鉢巻)'라는 군사도로가 만들어졌으며, 각 진지와 진지, 진지와 포구를 연결하는 군사도로도 곳곳에 남아있다. 특히 제주도 서남부 대정지역은 군사전략상 요충지로서,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 오오무라(大村) 해군 항공대 병사, 석알 오름의 고사포진지, 해안 특공기지 등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같은 제주도내 일본군의 군사시설은 국내에서도 가장 풍부하게 남아 있는 일제 침략의 증거물일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실상을 통해 평화를 학습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쟁유적지(戰爭遺跡地)²⁾라고 할 수 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일본정부가 항복하면서 제주도에서 전쟁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전투를 준비하던 각종 시설 공사는 중지되었고, 일본군은 미군의 배에 실려 일본으로 송환되었다. 제주도민 가운데 현재 70대 이상의 노인들은 지금도 1945년 당시 일본군이 주둔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던 상황을 잘 기억하고 있다. 또 송악산이나 성산포 등 바닷가는 물론 제주도 전역의 오름마다 눈에 띄는 인공 갱도(坑道)가 수없이 많다. 그렇지만 그동안 누가 왜 어떤 이유로 뚫어 놓은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밝혀 보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1)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2004, 231쪽.

2) 전쟁유적지(戰爭遺跡地)란 일반적으로는 전투가 있었던 장소를 가리키지만, 좀 더 넓게는 전쟁과 관련 있는 구조물과 건축물, 철거된 부지 등을 모두 포함한다. 十菱駿武, 菊池實編, 『しらべる戦争遺跡の事典』, 柏書房, 2002, 4쪽.

*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5-079-AS0018).

** 제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그러다가 1992년 SBS에서 일본군의 전쟁유적지에 관한 특집 방송³⁾을 내 보낸 이후, MBC를 비롯한 언론 매체에서도 여러 차례 다루면서 점차 일반인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다. 한편 제주 동굴연구소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제주도 전역의 지하 갱도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으며,⁴⁾ 2004년 지하호가 잘 남아 있는 가마오름을 정비한 평화박물관이 개관하였다. 문화재청은 알뜨르 비행장과 송악산 일대 전쟁 유적지를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⁵⁾ 이처럼 잊혀졌던, 혹은 외면당하던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일본군들이 조성해 놓은 군사시설에 대한 관심이 지난 5~6년 사이에 갑작스럽게 커졌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일제하 제주도 전쟁유적 조사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제주도 전역의 일제하 일본군 전쟁유적지 대한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실시했다. 물론 예상하지 못했던 전적지가 속속 발견되고, 인터뷰 대상자도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전모를 파악하기는 무리지만,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만으로도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가능했다. 이 글은 이번 탐라문화연구소 조사팀이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일제 말기 '본토결전' 준비와 제주주둔 일본군의 주둔 상황, 그리고 그들이 남겨 놓은 전적지의 현황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1945년 제주도, 결7호작전의 비밀", SBS 문성근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 1994년 4월 21일.

4) 「제주시 사라봉, 별도봉, 화북동 일대 일본군 진지동굴 종합학술조사」, 2000: 「제주도 일대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및 진지 조사 연구보고」, 2001: 「진지동굴 및 진지조사 연구보고서」, 2001: 「남제주군 서부지역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2005: 「송악산 제1차 분화구 외륜산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조사(측량)보고서」, 2006.

5) 『한라일보』 2006년 2월 18일.

2. 연구의 과제와 조사 방법

(1) 기존 연구의 검토

그동안 국내 전쟁 유적 가운데 그래도 비교적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을 꼽는다면 단연 제주도일 것이다. 최근 전국 각지에 일본군이 남긴 전적지에 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서울과 전라도 도서지역에도 일부 전적지가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⁶⁾ 체계적인 보고는 아직 없다.

제주도의 전적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부분적인 탐사와 자료 정리가 있었다. 먼저 한국공군 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이 제주도 전적지를 조사한 바 있으며,⁷⁾ 고병오와 박용후는 모슬포의 제주도 항공기지를 다루면서 공사개요와 시설분포도를 제시하였다.⁸⁾ 김봉옥은 전시하의 일본군에 대해 주로 일본 자료 조선에서의 전쟁준비를 요약했지만, 교육과 문화에도 언급하고 있으며, 전후 일본군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⁹⁾ 일본에서는 『朝鮮軍概要史』가 발간되어¹⁰⁾ 부분적인 소개가 이루어졌고, 森田芳夫는 「朝鮮에서의 戰爭準備」를 기초로 일본인 쪽의 증언을 더하여 간단하게나마 정리한 바 있다.¹¹⁾ 神谷丹路는 1991년과 2000년에 제주도 현지조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여 소개하는 글을 발표했다.¹²⁾

6) "서울의 지하 군사시설: 경희궁에 일제 때 만든 105m 지하벙커!", 『조선일보』 2006년 1월 10일; "거문도 일제 군사시설", 『서울신문』 2006년 5월 29일.

7) 한국 공군 제8546부대 전사적지 탐방반, 『제주도 전사적지 탐방기』, 1996.

8) 고병오·박용후, 『元 大靜郡志』, 박문출판사, 1968.

9)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10)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1946,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朝鮮思想關係資料集 五, 高麗書林, 1989, 附錄1.

11)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嚴南堂書店, 1964.

12) 神谷丹路, 『日本軍の足跡』, 『韓國近い昔の旅』, 凱風社, 1994; 神谷丹路, 『韓國歷史漫歩1』,

지하호(地下壕)에 대한 조사는 「제주도 동굴연구소」가 시작하였다. 비록 아직 일부이지만, 일본군 진지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구축된 각종 지하호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개괄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¹³⁾ 이 작업들은 몇 년 동안에 걸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일본군이 파 놓은 지하 갱도들 가운데 규모가 크고 중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 실제 규모를 과학적 측량 방법을 바탕으로 실측하여 제시함으로써 면모를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한편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제주도의 일본군 전적지를 사이판과 비교하는 작업을 한 바 있으며,¹⁴⁾ 남제주군이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만든 모슬포 전쟁 유적지 관광 자원화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도 나와 있다.¹⁵⁾ 하지만 이 보고서들은 일본군 전적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광자원화 논의를 전개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역사학 연구자들에 의해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연구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츠카자키는 당시 제주도에서 거대한 '본토결전'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그는 왜 '일본본토' 밖에서 '본토결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일까, 그 준비는 일본인 병사만으로 행해진 것일까, 그리고 제주도에서의 '본토결전'은 어떻게 행해지려 했던 것일까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제주도에 배치된 일본군의 특성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였다.¹⁶⁾ 신주백은 1945년 한반도 주둔 일본군의 '본토결전'

『月刊韓國文化』 33号, 2000; 神谷丹路, 『韓國歴史漫歩2』, 『月刊韓國文化』 34号, 2001.

13) 주5의 문헌과 제주도, 『제주도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보고서』, 2003; 손인석, 「제주도에 구축된 일본군 진지동굴 구조적 유형과 병력」, 『동굴연구』 제3호, 제주도 동굴연구소, 2004; 강순원, 「제주지역 진지동굴의 역사적 고찰」, 『동굴연구』 제3호, 제주동굴연구소, 2004; 제주도동굴연구소,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I (제1단계 남제주군 서부지역 조사 중간보고)』, 2005.

14) 제주발전연구원, 『제주지역 일본군 전적지의 역사교육장화를 통한 관광 상품화 방안』, 2001.

15) 남제주군, 『모슬포 전쟁유적지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수립 보고서』, 2005.

준비를 주제로 삼아 편제와 병사 노무동원 방식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이 논문에서 제주 주둔 일본군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¹⁷⁾

이와 같은 조사·연구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하 제주도 전쟁유적지연구는 아직 초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역사적 접근 방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적지와 관련한 일본군의 전략과 주둔 상황을 잘 규명하지 못했다. 현장 탐방류의 현지 기초 조사와 측량 위주의 지하호 조사 등은 일본군의 전략, 전술 및 주둔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 정리를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지하호와 비행장 시설 등을 실측 조사하는데 그쳤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일본군 전쟁 유적을 폭넓게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군이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때부터 패전 이후 모든 무기를 회수당한 채 미군 LST에 실려서 돌아갈 때까지의 전체 과정을 시야에 넣고 파악해야 한다. 둘째, 대부분의 당시 문헌 자료가 파괴되고 사라진 지금, 군사시설의 구축에 강제 동원되었던 주민들에 대한 면접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들의 증언을 듣고 구술 내용을 연구에 활용하지 못했었다. 셋째,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온 일제 군사시설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즉 보존 활용 대책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 주민들의 생활실태, 그들의 일본군과의 관계 및 일본군에 대한 인식, 나아가 해방 이후 60년이 지난 오늘날의 과제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조사·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문제

16) 塚崎昌之, 「神州不滅」本土決戦の實態, 『季刊戦争責任研究』 29, 日本の戦争責任資料センター, 2000; 塚崎昌之, 「濟州島における日本軍の「本土決戦」準備-濟州島と巨大軍事地下施設」, 靑丘學術論叢 第22輯, 韓國文化研究振興財團, 2003; 塚崎昌之, 「朝鮮人徵兵制度の實態-武器を与えられなかった「兵士」たち」, 『在日朝鮮人史研究』 34, 綠陰書房, 2004.

17) 신주백, 「1945년 한반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역사와현실』 제49호, 한국역사연구회, 2003.

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제주도내에 산재한 일본군 전쟁유적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해 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물론 모든 과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본군의 전략과 주둔 실태, 그리고 전적지의 전반적인 현황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조사 방법

본격적인 조사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은 문헌 조사, 현장 조사, 생존자 인터뷰 조사의 세 가지였다. 이 세 가지 조사가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문헌 조사는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조사·연구 주제와 관련된 1차 문헌 확보에 주력했다. 먼저 일본에서 찾아낸 것은 동경의 방위청 방위연구소 도서관 소장 자료가 중심이다. 그 중 중요한 목록으로 ① 濟州島航空基地(『鎮海警備府 引渡目録』), ② 「朝鮮における戦争準備」(朝鮮軍 殘務整理簿), ③ 「濟州島航空基地位置圖」, ④ 「第58軍配備概見圖」, ⑤ 알뜨르飛行場 平面圖, ⑥ 『機密作戰日誌』(乙綴), ⑦ 海軍 『引渡目録』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전쟁 직후 일본군이 남긴 서류철로 당시 제주도 주둔 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본군 내부 자료이다. 이 자료만으로도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더 이상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를 보기 어렵다.¹⁸⁾

18) 그 이유를 이케다는 “1945년 패전 직후 일본육·해군이 처음으로 내린 지령은 「모든 軍史資料의 처분」이었다. 각 군은 기지에서 그 명령을 실행에 옮겨 파괴, 소각, 바다에 던지거나, 묻어 버리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전쟁 기록을 소멸시켰다. 일본 국내에서는 점령군이 도착하기까지 약 40일 동안 매일 이 작업이 계속되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池田一郎, 『戦争遺跡をして何を語らせるか』, 十菱駿武, 菊池實 編, 『しらべる戦争遺跡の事典』, 柏書房, 2002, 71쪽). 그런 점에서 현재 남아 있는 일본군 관련 자료는 소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거나, 미처 소각하지 못한 일부 자료인 셈이다.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이 보관하고 있던 조선인 병사 및 군속 약 24만명의 명부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정부에 인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명부에는 제58군 직할부대, 예하부대, 제1특설 근무대 명부도 포함되어 있다.¹⁹⁾ 그러나 이 명부는 현재 자료 전산화가 진행 중이고,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이용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주목한 것은 미국측 자료였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미국측 자료에는 9월 28일 제주도에 특별히 파견되어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를 담당했던 미군 ‘항복 접수팀’과 ‘무장 해제팀’이 남긴 기록이 풍부하게 남아있다. 미군이 남긴 보고서에는 제주 주둔 일본군의 배치 현황, 일본군의 구성, 무기 장비 실태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일본군의 항복과 무장 해제, 일본군의 철수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²⁰⁾

둘째로 제주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현장을 직접 조사하였다. 먼저 조사 예상지역을 선정하고, 필자를 포함한 3명의 연구원과 2명의 보조연구원으로 구성된 현장 조사팀이 등산전문가의 협조를 얻어 조사팀을 구성하였다. 2005년 9월 첫 주부터 시작된 조사는 2006년 7월까지 모두 40회 실시되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비교적 높은 고도의 산악지역을 조사하다가,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눈이 쌓여 조사가 불가능한 지역을 제외한 바다가 가까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4월 이후 다시 산악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실시하였다. 조사에 앞서 일본군 지도에 표기된 전적지를 현재 지도 및 지적도와 비교해 현 위치를 비정하고, 위치가 확인된 전적지를 찾아가 확인하였다. 지역별로 전적지에 대해 정보를 가진 지역 주민들 중에서 구술증언자를 물색하였다. 증언자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구술증

19)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2004, 272-3쪽.

20) 제주4·3연구소, 『제주 4·3자료집 : 미군정보보고서』, 제주도의회, 2000.

언자를 확보한 경우는 현장에 동행하였다. 전적지 현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지도상에서 좌표를 확인하고, 기록사진을 찍고, 캠코더로 촬영하였으며, 지하호의 경우에는 도면을 작성하였다.²¹⁾

셋째로 부족한 문헌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동안 기존 연구에서는 면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지 생존자들이 대부분 70세 이상이므로, 시간이 흐르면 조사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면접조사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주 면담자 1명과 보조 면담자 1~2명으로 팀을 구성하여 모두 두 팀이 매주 토요일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현장에서는 두 팀 모두 MD녹음기와 보이스트레코더, 카메라, 캠코더를 갖추고 인터뷰 상황을 녹음하고, 촬영하면서 실시하였으며, 돌아온 뒤에는 주로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2005년 10월부터 시작된 구술조사는 2006년 7월까지 매주 실시되었다. 강제동원 구술 대상자는 징병과 일반 노무동원으로 나누고, 질문할 때는 동원과정, 동원시기, 동원기간, 동원지역, 일본군과의 관계 등을 질문하는 한편, 당시 일본군의 동향, 마을 주민들의 일본군에 대한 태도 등을 포함시켜 종합적으로 예상 질문지를 작성하여 사용하였다. 그 결과 모두 55명을 인터뷰하였고, 구술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였다.²²⁾

한편 조사과정에서 제주도에 주둔했던 일본군 병사를 찾아냈고, 그 중에서 2명을 면접 조사하였다. 그러나 면접한 제주도 주둔 일본군은 장교가 아닌 일반 병사이며, 작전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던 제한된 경험 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제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과는 다른 지배자의 입장에서 있던 병사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²³⁾ 그 중

21) 현장 조사 결과는 『일제말기 제주도 일본군 전적지의 현장조사보고서』(가제)로 2007년도에 간행될 예정이다.

22) 조사 결과는 『일제말기 제주도 일본군과 제주도 : 인터뷰 조사 보고서』(가제)로 2007년도에 간행될 예정이다.

23) 상세한 자료 설명은 다카무라 료헤이,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 군인의 제주도 주둔 경험』,

1명은 직접 제주도를 찾아와 자신이 주둔했던 지역을 확인하고 증언했다.

이와 같이 문헌 조사, 현장 조사, 생존자 인터뷰 조사 결과로 상당량의 자료가 축적되었다. 이 자료들을 결합시킴으로써 일본군이 제주도에 들어와 각종 전투 시설을 구축하며 전쟁을 준비하던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는 종합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다. 조사결과는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인 **결7호작전**의 개요와 준비상황,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병력 배치와 전력,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등으로 정리하겠다.

3.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과 전투준비

(1)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

오래 동안 제주도는 진해에 설치되어 있던 해군 진수부 관할 하에 있었지만, 일본군의 관심 밖에 있다가 현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의 모슬포 지역에 1930년대초 일본 해군 비행장이 조성되었다. 이 비행장은 1937년부터 난징(南京) 해양폭격 기지로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나가사키현(長崎縣)의 오오무라(大村) 항공기지에서 출격했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의 착륙장소로 사용되다가 점차 제주도를 거점으로 출격하게 되었다.²⁴⁾ 일본군이 1938년 11월 중순 상하이를 점령한 후 오오무라 해군항공부대는 다시 본거지를 중국 상해로 옮겨졌고, 알뜨르 비행장은 오오무라 해군항공대 연습비행장으로 활용되었다. 이 비행장은 그 뒤 공사를 거듭하면서 1945년에는 80만평 규모로 확장되었다.

『사회와역사』 70집, 한국사회사학회, 2007.

24) 巖谷二三男, 『中攻-海軍陸上攻撃機隊史(上卷)』, 出版協同社, 1955; 강순원,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6.

제주도가 해군 항공기로서가 아니라 본토결전 장소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일본 상공에 미군 B29기가 출현하는 1944년 5월경이다. 이는 일본 본토가 공습권역에 들어왔음을 의미하는 데, 일본군 육군이 제주도 모슬봉에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고 주둔하기 시작하였다.²⁵⁾ 1945년 2월 9일 일본방위총사령관은 미군 공격으로부터 일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작전, 즉 암호명 “결호작전”을 지시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주도 방어 작전계획, 이른바 결7호작전(決7號作戰)이다. 결1호작전은 홋카이도(北海道), 지시마(天島) 방면, 결2호작전은 토호쿠(東北) 방면, 결3호작전은 간토(關東) 방면, 결4호작전은 토카이(東海) 방면, 결5호작전은 주부(中部) 방면, 결6호작전은 규슈(九州) 방면, 제7호작전은 제주도 조선방면으로 구분하였다. 결호작전은 대부분 일본 영토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제주도가 유일하게 결7호작전의 대상이 되었다.²⁶⁾

이때 조선 방어를 책임진 제17방면군(方面軍)이 대본영으로부터 ‘국토결전작전 준비요강(國土決戰作戰 準備要綱)’을 지시받았다. 내용은 제주도에 제58군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력병력으로 2개 사단 및 1개 혼성여단, 그리고 그 밖의 예하부대를 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945년 4월 15일 제58군사령부가 신설 편성되었고, 제96사단, 제11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 독립속사포 제32대대, 제1특설근무대가 배치되며, 조선 본토에 제121사단을 대기시키고, 포병과 전차부대를 중국과 만주에서 제58군으로 이동, 배치하기로 하였다.²⁷⁾

제58군은 1945년 4월 제주도에 섬의 모든 군을 총괄하는 사령부 조직으로 편성되었다. 제주도에 창설된 제58군의 임무는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지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제58군의 군대의 배치와 작전지휘에 관해서는

25) 츠카사키, 앞 글, 2004, 227쪽.

26)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1946,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附錄1, 163-6쪽.

27)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171-2쪽.

제17방면군이 간섭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가능한 한 독자성을 부여하려 하였다. 그러나 기본 전략을 놓고 제17방면군과 제58군사령부는 처음부터 갈등을 빚고 있었다. 결7호작전의 기본 전략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해안결전이고, 또 하나는 후퇴배치 내륙결전이다. 해안결전은 해안 가까운 곳에 진지를 구축하여 적을 물리치는 전법이다. 이 작전은 상대에게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지만, 아군도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적이 제공권을 가지고 함포사격 엄호가 있을 때는 상황은 더 나쁘다. 한편 내륙결전은 해안에서 약간 후퇴한 지점에 진지를 구축하여 적의 상륙은 허락하지만, 장기 지구전으로 적의 전력을 소모시키는 작전이다. 아군 전력의 조기소모는 피할 수 있지만, 적에게 한 번에 큰 타격을 줄 수는 없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²⁸⁾

제17방면군사령부는 1945년초부터 이미 해안결전 전략을 세워놓고 있었다. 말하자면 작전 초기단계부터 상륙하는 미군을 저지하는 작전이었다. 그러나 제58군사령부는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병력과 화력이 부족해 해안결전이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고 후퇴배치 내륙결전으로 전략을 변경했다. 즉, 미군 상륙과 동시에 타격을 입히는 전술보다는 상륙을 허용하고 장기간에 걸친 게릴라식 방어 전략을 선택한다. 제1방어선이 무너지면 제2방어선으로 이동하고 최후에는 한라산(어승생악을 중심으로) 전체를 이용하여 장기간의 전투로서 미군에 타격을 주려는 전술전략이었다. 그러나 일본 본토의 전쟁지휘부와 제17방면군은 제58군이 해안결전 전략을 따르도록 요구하고 있었다.²⁹⁾ 특히 오키나와전에서 일본 수비군이 채택했던 내륙결전이 패전으로 귀결됨에 따라, 그 영향을 받아 58군 사령부의 작전계획도 해안결전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제3차 전력 강화’가 진행되었다. 그 핵심은 대기시켰던 제120사단을 제주도로 배치하여 전력을 강화하는 것이었다.³⁰⁾ 제120사단은 해안에의 전진 배치가 예정되었는데, 이를

28) 츠카사키, 앞 글, 2004, 255-6쪽.

29)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1946, 174쪽.

통해서 볼 때 제58군 사령부는 기존의 자신들의 내륙결전 전략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해안결전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일본군의 유입과 병력 배치

1945년 3월부터 일본군 병력이 제주도로 들어오기 시작하여, 일본이 항복하던 8월 15일경에도 계속 들어오는 중이었으므로, 일본군의 제주도 유입과 배치 상황을 단계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에서의 전쟁준비'와 일본 방위청 소장 자료인 '기밀작전일지(을철)'³¹⁾가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표 1> 제주도에 배치된 일본군³²⁾

부대명	第59軍	第96師團	第111師團	第121師團	獨立混成108旅團
통칭	砦(도리데)	玄(겐)	市(이찌)	榮光(에이코)	翠(스이)
편성시기	1945. 4	1945. 2. 6	1944. 7. 12	1945. 1. 16.	1945. 3. 16
편성지	濟州	京城	滿洲	滿洲	京都
책임자	中將 永津左比重	中將 飯沼守→ 中將 玉田美郎	中將 岩崎民男	中將 正井義人	少將 平岡力
병력	370명	9,000명	12,000명	13,000명	6,000명

30) 츠카사키, 앞 글, 2004, 256-7쪽: 황석규, 「전쟁말기 제주도 일본군 주둔의 사회역사적 의미-제111사단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2006.

31)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日本防衛研究所圖書館 所藏.

32) <http://homepage1.nifty.com/kitabatake/rikukaiguntop.html>: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附表3, 附表4.

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일본군이 대량으로 제주도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45년 4월부터이고, 그 때부터 본격적인 전쟁 준비가 진행되었다. 제주도에 먼저 들어온 것은 96사단이며, 다음으로 108여단이 들어왔고, 뒤를 이어 만주의 관동군(關東軍)이었던 111사단과 121사단이 제주도에 배치되었다. 제96사단은 총병력 9,000여명에 예하부대 6개, 제111사단은 1만2,000여명에 예하부대 4개, 제121사단은 1만3,000여명, 독립혼성제108여단은 6,000여명에 예하부대 3개 등이었다.³³⁾

제96사단(사단장 이이누마 중장)과 제108여단(여단장 히라오카 츠토무 소장)은 전쟁 말기 일본군의 전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급히 창설한 부대이다. 제96사단은 후쿠오카(福岡) 지역 예비역들을, 제108여단은 교토(京都)를 중심으로 관서지역 예비역들을 재소집해서 만들었다. 제96사단과 제108여단은 무장도 허술했고, 재소집병들이 대부분이라 나이도 많고, 훈련도 부족하고, 장비도 제대로 갖추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전투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³⁴⁾

이 부대들은 창설하자마자 제주도 배치를 명령받고, 장비도 충분히 보급받지 못한 상태로 제주도로 들어왔다. 제96사단은 4월 8일에서 22일까지 여수와 목포항을 거쳐 제주 산지항으로, 제108여단은 4월 15일과 16일 양일 동안에 대마도를 거쳐 모슬포항으로 각각 상륙한다.³⁵⁾ 제96사단은 제주

33)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1946, 宮田節子 編, 『朝鮮軍概要史』, 附表3, 附表4.

34) 당시 일본군은 1945년 초부터 본토결전 준비에 들어갔는데, 적어도 50개 사단이 필요했지만 병력이 크게 부족했다. 작년에 이미 29개 사단을 창설하면서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농업종사자, 공장종사자, 교사 등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였다. 그래도 40개 사단밖에 구성할 수 없었고 화력도 크게 부족하였다. 太平洋戰爭研究會, 『戰略・戰術でわかる太平洋戰爭』, 日本文芸社, 2002, 272쪽.

35) 96사단의 도착은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 戰爭準備」, 1946, 172쪽: 독립혼성제108여단 병력의 제주도 도착 사실은 일본군 비밀전문에서 일부 발견된다. 1945년 4월 16일 제주항으로 1,642명, 서귀포항으로 1,591명 등이 도착. 일본방위연구소도서관, 「玄師參電 第60号」, 「玄師參電 第103号」,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시를 중심으로, 제108여단은 서귀포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다. 제96사단은 들어오자마자 사전 준비 및 정찰 임무를 맡아 활동하다가 4월 20일 군사령부가 제주시 공업농림학교에 자리 잡게 되자, 결과를 제58군사령관에게 보고하였고, 일부는 제111사단이 들어오기 이전에 진지구축을 위해 모슬포지구에 투입되었다.³⁶⁾

한편 제111사단(사단장 이와사키 도미오 중장)은 만주 관동군 제9독립수비대를 바탕으로 1944년 7월 편성되었는데, 4월 4일 제주도 진출명령을 받고, 4월 8일 참모장 및 58명의 선발대가 제주도로 들어왔다.³⁷⁾ 본대는 4월 14일부터 만주로부터 이동을 시작하여 5월 상순에 목포를 거쳐 제주도 산지항에 상륙하였다. 독립산포제23대대, 분진포제1대대, 전신제11연대, 제1, 제3독립 작정소대, 전차1중대, 야전중포병부대1중대, 제1특수군무대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상륙했다.

1945년 6월 중순에 제121사단이 상륙하였다. 제121사단(사단장 마사이 요이히토 중장)은 제28사단의 잔류부대를 바탕으로 1945년 1월 만주 하얼빈에서 관동군 예하부대로 창설되었는데, 다른 부대보다 이동이 늦어 먼저 만주에서 대전으로 이동했다가 5월 21일에서 6월 20일 사이 제주도에 상륙한다.³⁸⁾ 두 사단은 만주에서 전투경험을 쌓은 현역 병사들이 중심이었으며, 화력도 강해 정예부대로 평가받고 있었다.

만주철도수비대로 시작한 관동군은 만주국을 건설하고 중일전쟁을 치렀으며, 대소전쟁을 준비하였다. 물론 일본이 대소전쟁을 포기하면서 예비병력으로 남게 되었지만, 언제 소련이 침공해 들어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대기상태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쟁이 격화되고 남방(南方)전선에 많은 병력이 필요하자, 1943년부터 중국 만주 지역의 관동군과 조선군이 속속 남부로 배치되었다.³⁹⁾ 따라서 이미 많은 병력이 빠져나가 1945년에는

36)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1946, 17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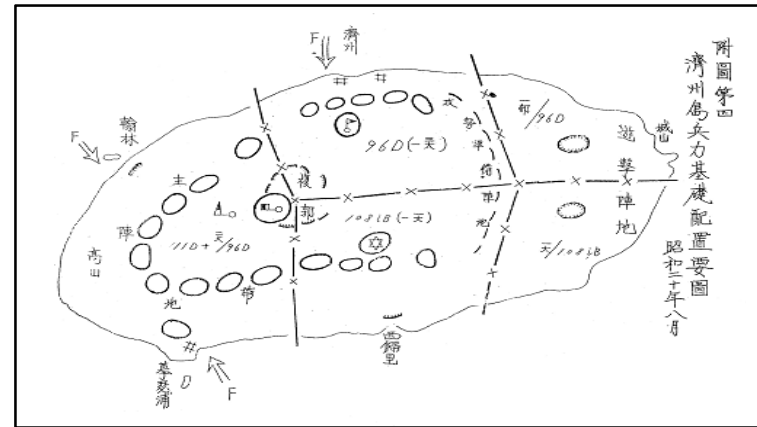
37) 築參電 第2098號, 機密作戰日誌(乙綴); 玄師參電 第60號, 機密作戰日誌(乙綴), 1945.

38)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33쪽; 築參電 第2492號, 機密作戰日誌(乙綴).

관동군에도 병력이 많이 남지 않은 상태였지만, 소련이 침공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토 결전에 필요한 병력을 다시 관동군으로 채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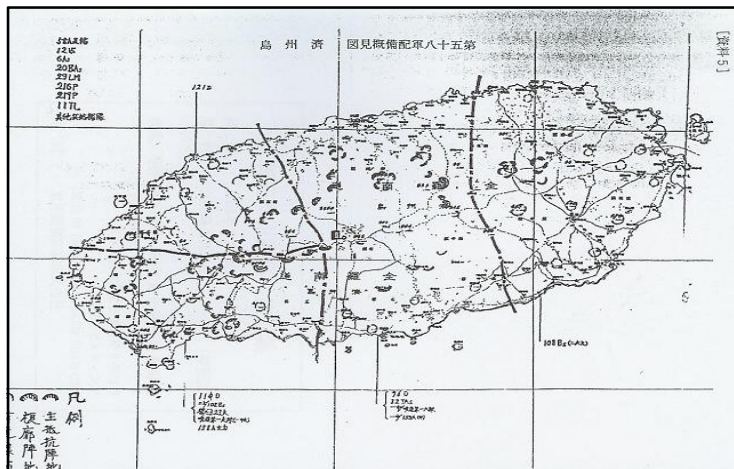
제58군(사령관 나가쓰 사비주 중장) 사령부는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하였다.⁴⁰⁾ 제주시 공립농업학교(흔히 農高라고 부른다)에 자리 잡고, 직할부대는 사령부를 비롯해 전신부대, 공병대, 병참병원, 비행장경비대 등 14개 부대가 있었다. 제12포병사령부도 제58군의 직접 지휘를 받았으며 4개 포병부대를 예하에 두고 있었다.

<지도 1> 제주도병력 기초배치요도(1945년 8월)⁴¹⁾



- 39) 다음은 조선주둔 부대의 남방 이동에 관한 기록이다.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31-4쪽.
1. 1943년 1월 제20사단이 京城에서 動員을 完結하고, 釜山을 거쳐서 新加坡로 출정
 2. 1943년 2월 제49사단을 京城에서 편성하여 6월 부산을 거쳐 緬甸을 향해 出征시킴
 3. 1944년 5월 평양 제30사단에 동원명령이 떨어져 곧바로 필리핀을 향해 부산항을 출발
 4. 1944년 11월 남방의 제19사단 동원을 완결하여 12월 필리핀을 향해 부산항을 출발하였으나, 해상수송 방해를 받아 주력은 대만에 상륙하여 대만군에 편입
- 40) 築參電 第3901號, 機密作戰日誌(乙綴).
- 41) 第1復員局, 『本土作戰記錄 第5卷 第17方面軍』, 宮田節子編, 『朝鮮軍概要史』, 附圖 第4 濟州島兵力基礎配置要圖, 246-7쪽.

<지도 2>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⁴²⁾



다음으로 부대배치를 보자. 제주도에 일본군이 속속 도착하면서 미군 공격 예상로를 따라 방어선을 설정하고 각 부대들을 배치하였다. 미군 침투 예상 지역은 모슬포 일대의 서남부지역, 비양도, 한림항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지역, 그리고 제주시 일대의 중부 지역이었다. 따라서 <지도 1>에서 보듯이 미군 침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서부지역(안덕-대정-한경-한림-애월)을 '주진지대(主陣地帶)'로 설정하고, 중부지역(제주시-서귀포)을 '공세준비진지(攻勢準備陣地)'로, 그리고 침투 가능성이 낮은 동부지역(조천-구좌-성산-표선-남원)을 '유격진지(遊擊陣地)'로 설정하였다. 제1방어선이 주진지대이고, 제1방어선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부대가 공격준비진지대에 자리 잡으며, 제1방어선과 제2방어선이 무너질 때를 대비한 부대가 유격진지에 자리 잡았다.

제111사단은 들어오자마자 주진지대에 폭넓게 배치되었다가, 6월 중순에 제121사단이 들어오면서 제111사단의 작전범위는 서부지역 전체에서 안덕

대정, 고산에 이르는 서남부지역으로 좁혀졌다. 사령부도 북제주군 당오름, 원물오름(남제주군 동광리 일대)에 자리 잡았다. 동시에 동부지역 방어를 투입되었던 제108여단으로부터 2개 대대 병력을 지원받아 배치하였다.⁴³⁾

한편 제121사단은 서북부지역인 한경, 한림, 애월 지역에 배치되었다. 제121사단이 담당했던 서북부 지역은 일본군의 상륙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점으로 판단되어 넓은 지역을 적은 병력으로 수비하는 형태로 짜여졌다. 바리악의 사단사령부를 중심으로 보병제262연대가 한림읍 금악 지역에, 263연대가 애월읍 금덕 지역, 제264연대가 애월 지역에 주둔했다. 주로 해발 200m 고지대에 연대급 본부 숙영지를 설치하고, 말이나 포나 식량 전투 준비물도 이 숙영지를 중심으로 저장시설을 만들어 저장했고, 그 아래쪽으로는 대대, 중대급이 포진하였다.

제2방어선으로 제1방어선을 지원할 '공격준비진지대'와 가장 후방인 '유격진지대'에는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각각 주둔했다. 제96사단은 제주시를 중심으로 배치되었는데, 사단 사령부는 제주시 민전동(현 산천단)에 자리 잡고, 보병제292, 제293, 제294연대가 주둔하고, 정뜨르와 진드르의 육군 동·서비행장 경비를 담당하였다. 한편 송당지역과 그 해안가 쪽으로 1개 대대가 주둔하였다.

독립혼성제108여단은 제1, 2방어선이 무너질 경우에 대비한 '유격진지대'인 서귀포시 지역과 동남지역에 폭넓게 주둔했다. 여단사령부를 거문오름과 부대악(조천읍 선흘리) 부근에 두었으며, 서귀포 녹하지악과 성읍리 등에 주력부대를 두었다. 그러나 종전 직전에는 여단사령부가 구좌읍 평대리 부근에 위치하고 예하 보병제646대대, 여단통신대, 여단공병대, 제64병참병원 1개 중대, 제2독립작정소대, 독립자동차제300중대 등이 배치됐다. 또 보병제644대대는 함덕, 보병제643와 645대대는 김녕과 표선, 647대대는 하도, 642대대는 성산지역에 각각 주둔했다.⁴⁴⁾

43) 강순원, 2006, 44쪽.

44) 제주도의회, 『제주4·3자료집 : 미군정보고서』, 제주도, 2000, 187-188쪽.

42) 『第58軍配備概見圖』, 1945, 일본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 소장.

한편 제58군 사령부는 제주시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미군의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들을 한 눈에 살필 수 있는 한라산 중턱의 어승생악 일대로 사령부를 옮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사령부가 제주시의 제주공립농업학교에 계속 위치했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로 옮긴 적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오кина와전이 패전으로 끝난 다음, 제17방면군은 주진지대, 공격준비진지대, 유격진지대라는 역할 분담을 벗어나, 제주도 주둔 부대를 연안구속병단과 기동결전병단으로 구분하는 새로운 역할분담을 지시하였다. 연안구속병단이란 상륙예상지점에 배치되어, 그 지역을 사수하는 병단이고, 기동결전병단은 예상되는 상륙지점 어디든지 투입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병단이다. 이 작전명령을 받은 제58군사령부는 8월 1일에 제주도내 참모를 모아 작전계획의 변경을 명령한다.⁴⁵⁾ 제111사단은 연안구속병단으로 소속되며, 전투 시 한발도 후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후까지 싸우면서 미군에게 충격을 가하는 결전태세를 갖추게 된다. 또한 기동결전 병단인 제121사단, 제96사단, 제108여단은 항상 연안구속병단을 지원할 준비태세를 갖추게 된다. 내륙결전에서 해안결전으로 전략이 바뀌자 서남부지역의 제111사단은 예하부대를 해안가 쪽으로 전진 배치한다. 특히 산방산-단산-논오름-율라봉-군산 일대는 제111사단의 예하부대인 보병제245연대를 중심으로 증강부대들이 배치되어 최후 결전을 준비했다.

4.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

제주도내 일본군 전적지는 크게 비행장, 해군 특공기지, 그리고 제주도 전역에 구축된 방어진지들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비행장이라고 하더라도

45) 츠카사키, 2004, 258쪽.

활주로만이 아니라, 관제탑, 비행기 격납고, 탄약고, 대공포 진지, 참호, 감시초소, 통신시설, 숙소, 대피소 등 많은 부대시설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해군 특공기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또한 방어진지도 간단한 개인 참호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지하호까지 다양한 형태를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대체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비행장

당시 제주도내 비행장은 해군의 대정읍 모슬포 알뜨르의 해군항공기지(일명 알뜨르비행장), 육군의 제주시 용담동의 육군서비행장(일명 정뜨르비행장), 조천읍의 육군동비행장(일명 진드르 비행장),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건설된 교래리 비행장의 4개소가 있었다. 이 가운데 정뜨르 비행장은 현재 제주국제공항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래리 비행장은 대한항공의 정석비행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대한항공 비행훈련원이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진드르 비행장은 활주로는 현재 제주시와 조천읍을 잇는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그 주변의 넓은 토지는 농경지로 바뀌었다. 이 세 군데 비행장은 모두 현재 과거의 흔적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된 상태이다.

반면 알뜨르의 해군항공기지는 국방부 소유지로 묶여 있으면서 개발이 제한되어 당시의 시설이 가장 풍부하게 원형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1945년 종전될 때 비행장 관련 토지 면적은 80만 평에 이르렀다. 비행장 면적은 120만㎡, 활주로는 남북방향 1,400×70m, 유도로 3,500×2,500m의 규모이다. 현재 알뜨르비행장은 공군의 비상활주로로 이용되고 있다.

주변에 구축된 군사시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비행기를 감춰 두었던 엄체호(掩體壕)이다. 엄체호는 20기가 있었던 데, 19기는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다. 모두 콘크리트로 위를 덮은 유개(有蓋) 엄체호다. 나머지 1기는 콘크리트가 해체되어 잔해만 남은 상태다. 아래 폭이 20m, 높이가

4m에 이르는 엄체호는 근처 바닷가에서 가져온 잔자갈과 모래, 시멘트 철근 등을 혼합해서 축성했음을 알 수 있다. 위에는 미군의 공습이나 폭격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흙을 쌓아 위장했다. 활주로 옆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지하벙커가 거의 원형대로 남아 있다. 지하벙커는 외부에서는 낮은 언덕처럼 보이도록 위장해서 만들었다. 활주로 부속시설로서 통신시설이 아닌가 추측된다. 내부 벽면에는 사각형 홈이 여러 개 있으며, 좁은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안쪽에 관측용 통로가 위를 향해 나 있다.

그밖에 고사포진지 3곳, 탄약고 1동, 청사 2동, 사관숙소 2동, 병사숙소 17동, 공장, 창고, 병원막사, 지하벙커 등 대규모로 시설이 들어섰지만, 현재 이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그러나 알오름 내부에 만들어진 미로와 같은 지하호가 옛 모습 그대로 잘 남아 있다.⁴⁶⁾

(2) 해안특공기지

태평양전쟁에서 패전위기에 몰리자 1945년 들어 해안가에 자살 특공기지를 건설하였다. 해군의 자살특공대는 미군 상륙용 선단이 상륙지점으로 진입하여 병원자재 등의 상륙을 시작하기 전에 선박을 공격, 침몰 또는 파손시키는 임무를 목적으로 편성된 부대다. 일제가 제주도 해안에 만든 특공기지는 모슬포 송악산을 비롯 북촌 서우봉, 서귀포 삼매봉, 성산 일출봉과 고산 수월봉 해안가 모두 5곳이었다.⁴⁷⁾ 교룡(蛟龍), 해룡(海龍), 회천(回天), 진양(津洋) 등 특공부대들이 제주도로 진출하도록 되어 있었다.⁴⁸⁾

46) 일본 방위청에 소장된 이 지역 관련 지도(「航空基地圖」)를 보면, 알뜨르 비행장 일대 군사시설 배치 상황이 상세히 그려져 있다. 또한 「濟州島航空基地 位置圖」에는 알오름 내부의 군사시설 배치까지 잘 그려져 있다.

47) 朝鮮軍殘務整理部, 「朝鮮における戰爭準備」, 1946, 附圖 第1其2 濟州島沿岸防禦配備要圖.

48) 츠카사키 마사유키, 「제주도에서의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 『4·3과 역사』 제4호, 제주4·3연구소, 2004, 231쪽.

이 가운데 회천기지는 송악산과 서우봉에 구축되었으나 실제 배치되지는 않았다. 모슬포 송악산 바닷가 쪽에는 16개의 회천(카이텐)이라는 특공정을 위한 갱도를 파다. 당시 갱도를 파는 현장에 동원되었던 증언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침식 작용에 의해 길이도 많이 짧아지고, 사라져 버린 것도 있다고 한다.⁴⁹⁾ 현재는 일자형 'H'자형, 'C'자형 등 동굴식 요새 15개가 굴착되어 있다.⁵⁰⁾ 서우봉 해안의 경우는 북촌 어촌계 포구(알개)에서 동쪽으로 10개, 북쪽으로 5~6개가 구축되어 있다.

일출봉과 삼매봉, 수월봉은 진양기지로 실제로 진양대가 제주도에 주둔했다. 고산 수월봉의 경우 당시 일제가 파놓은 유도로 시설의 흔적이 지금도 뚜렷이 남아있다. 확인된 유도로 시설은 처음에는 수월봉 해안의 특공정격납고(갱도)와 연결돼 있었다. 지금 남아있는 유도로 시설에서 해안 갱도까지의 거리가 60m 정도 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도로는 적어도 70m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6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파도 등에 의해 침식돼 10여m만 남아 있다.

(3) 방어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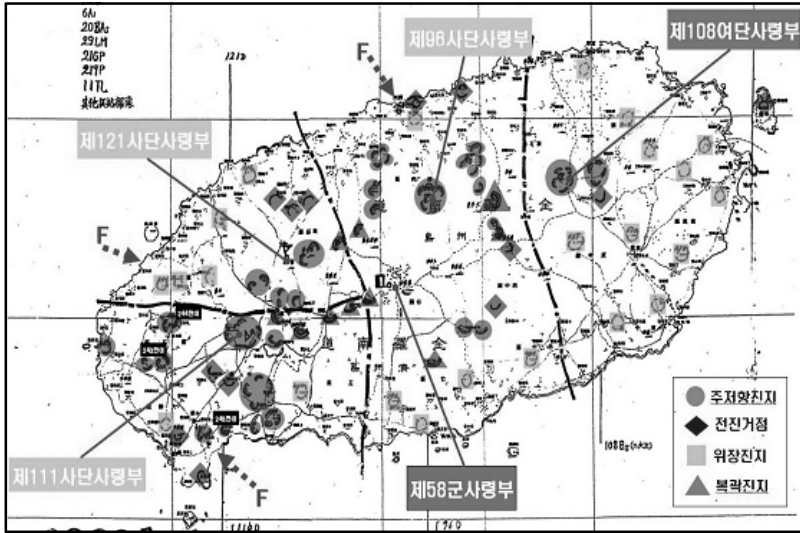
우선 1945년 8월에 일본군이 작성한 두 장의 지도(〈지도 1〉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와 〈지도 2〉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도 내 일본군 방어진지의 현재 위치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특히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는 실제 지도와 맞추어 볼 때 진지가 있는 거점이 거의 일치할 정도로 상당히 정확한 지도이므로,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새로운 전적지 분포도를 그려보았다. 그것이 〈지도 3〉이다.

49) 임창수(1927년생, 면담자: 지영임, 면담일시: 2006년 5월 27일).

김봉현(1928년생, 면담자: 지영임, 면담일시: 2005년 11월 5일).

50) 제주도동굴연구소, 「송악산 화산체의 해안절벽 진지동굴 측량도」, 『제주도 일본군 진지동굴·전쟁유적 조사보고서 1』, 2005, 55쪽.

<지도 3> 제주도 일본군 병력 배치도



<지도 3>을 토대로 제주도내 방어진지를 지역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우선 지역별로는 제주도 전역을 서부(主陣地帶), 중부(攻勢準備陣地), 동부(遊擊陣地)로 크게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 구분 방식에 따라서 제주도를 행정구역별로 나눠보면, 서북부는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서남부는 대정읍·안덕면·중문면, 중부는 제주시·조천읍·서귀읍·남원읍, 동부는 구좌읍·성산읍·표선면에 해당한다.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본토결전 준비를 위해서 제주도에 4종류의 진지가 구축되었다. 위장진지(偽裝陣地), 전진거점(前進據點), 주저항진지(主抵抗陣地), 복곽진지(複郭陣地)가 그것이다. 위장진지는 적의 포 폭격의 흡수·교란 등 적의 진행 방향을 틀리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진거점은 주저항진지의 전방에 부대를 파견하여, 주저항진지에 적이 접근할 수 없도록 방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저항진지는 모든 진지의 뼈대에 해당되는 곳으로, 주력을 쏟아 부어 방어하는 진지이다. 보병의 항전지대와 후방

의 주력포병으로 구성된다. 복곽진지는 주저항진지가 함락되었을 경우 최후의 저항거점으로 마련된 것이다.

방어진지는 모두 104개소에 구축되었는데, 위장진지 21개소, 전진거점 17개소, 주저항진지 54개소, 복곽진지 11개소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방어진지라고 할 수 있는 주저항진지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제111사단이 구축병단으로 배치된 서남부지역에 40%, 제58군사령부와 제96사단이 주둔한 중앙부에 30%가 밀집해 있다. 반면 제108여단 주둔지인 동부지역은 8개였고, 제121사단이 주둔한 서북부는 7개로 가장 적다. 최후 방어선인 복곽진지 역시 서남부 지역과 중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모두 한라산 정상에 가까운 고지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2> 지역별·유형별 전적지 분포 현황

(단위 : 개소)

지역별 유형별	서남부	서북부	중부	동부	합계
사령부 위치	동광 당오름	애월 밭이오름	영평동 삼의약오름, 어승생악	교래 부대오름	
위장진지(수)	2	3	5	11	21
전진거점(수)	5	5	6	2	18
주저항진지(수)	22	7	17	8	54
복곽진지(수)	5	1	5		11
비행장	모슬포 항공기지		동비행장 서비행장	교래리 비행장	4
해군특공기지	화순리 송악산	고산리 수월봉	북촌리 서우봉 서귀포 삼매봉	성산리 일출봉	5
합계	35	16	35	22	113

참고 : 『第58軍配備概見圖 濟州島』

제주도 서남부 지역은 미군이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주요 군사거점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일본군은 이 지역을 매우 중시하였고 다양한 군사시설을 집중시켰다. 특히 안덕면의 군산에서 월라봉, 산방산, 송악산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오름마다 대규모 지하호를 파놓았다. 제주도내 지하호가 구축되어 있는 오름은 150여개로 추정된다. 이 오름들은 주위를 충분히 살필 수 있는 고지대에 지휘소, 또는 관측소가 자리를 잡았으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오름을 중심으로 주변의 넓은 개활지에 숙영지를 설치하고, 훈련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지하호도 기능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을 것이다. 탄약이나 유류, 각종 군수품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미군 비행기의 공습에 대비하여 지하 사령부와 각종 사무실이 들어선 곳도 있었다. 제 111사단 보병제244연대가 배치되었던 가마오름이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현재 가마오름에는 지하갱도를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한 평화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다. 현재 공개된 지하갱도 구간은 300m이지만, 실제로 가마오름 갱도는 구조나 규모면에서 다른 오름의 갱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완성도도 높다. 여러 차례의 조사를 통해 대형갱도 3곳을 추가 확인했지만, 아직도 정확한 규모·길이는 알 수 없다.

한편 야전에서 적의 관측과 사격을 피하기 위해 엄폐를 위한 갱도도 있었고, 적을 맞아 싸울 때 한 쪽 입구로 숨어 들어가 10~20m 떨어진 다른 입구로 나올 수 있도록 파 놓은 이동호도 있었다. 그런가하면 수평 갱도를 4~6개 정도 뚫어 놓고, 각 갱도를 연결하는 교통호를 파놓기도 하였다.

지난 1년 동안 현장 조사를 수행하면서 일본군이 구축해 놓았던 전쟁 관련 시설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무너지거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군사시설이 들어섰던 토지 중에서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는 개인 소유지에 있는 시설들은 대부분 원형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소멸되고 있었다.

당시 파 놓은 지하호가 지금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 지하호 중에서 상당수가 입구가 무너져 내리거나 갱도 곳곳의 천장이 무너지고, 바닥에 흙이 쌓이고 물이 차서 진입(進入)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지하호를 건설할 때 양 옆과 천장으로 갱목을 받쳐주면서 앞으로 나아갔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마을 주민들이 이 갱목을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었던 데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갱목을 가져다 사용했던 이야기들은 증언 중에 많이 나온다.⁵¹⁾

한편 121사단 예하부대들은 해안가로부터 중산간 지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진지를 구축하였다. 예를 들면 북제주군 애월읍 소길리에 121사단 예하부대인 대대 규모의 병력이 주둔했었다고 한다. 이 군인들이 저지대로 내려와서 구업 신업 일대 지금 일주도로변 조금 위 언덕 있는 곳에 천정이 없는 교통호, 또는 무개호를 100~200m씩 이어가면서 수십 km를 뚫다. 일단 파는 작업이 끝나면 다시 수십 m 위로 올라가서 또 무개호를 파면서 계속해서 진지를 구축했다. 이것은 일단 미군이 상륙하게 되면, 저지대에 구축해 놓은 무개호에서 적을 맞아 전투를 하다가, 밀리면 이미 구축해 놓은 고지대의 진지로 이동하며 방어를 할 수 있는 진지를 단계적으로 마련해 둔 것이다.⁵²⁾

8월 15일 항복 선언이 있고, 전쟁이 끝나자 지하호를 비롯한 일체의 군사시설 구축 작업은 중단되었다. 지금도 가는 곳마다 완성도가 떨어지는 지하호가 많고, 파다 만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다.⁵³⁾

51) 오항인, 2006년 2월 18일 남제주군 안덕면 군산 현장에서의 인터뷰.

52) 강종화(애월읍 장전리, 75세)의 증언, 2006년 1월 25일.

53) 따라서 어떤 지역이 완성도가 높고 정교하게 갱도가 구축되었는지, 어떤 지역이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는지를 종합적으로 조사, 정리해서 전체 구도를 그려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5. 맺 음 말

이상의 작업은 일제 말기 일본군의 제주도 주둔에 대한 역사적 접근으로, 제주도에 대한 일본군의 작전계획인 「결7호작전 의 개요와 준비상황, 제주도 주둔 일본군의 병력 배치와 전력, 현재 남아 있는 제주도 내 일본군의 주요 군사시설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설명은 문헌 자료 뿐만 아니라 필자를 포함한 연구팀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면서 확인할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이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군과의 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일본군은 본토결전의 일환으로 제주도에 「결7호작전」을 준비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 방어를 전담하는 제58군이 창설되고 그 밑에 관동군 111사단과 121사단이 투입되고, 신설된 제96사단과 독립혼성제108여단이 합류해, 제주도 전역에 배치되어 미군 상륙에 대비하였다. 그들은 제주도에 도착하기가 바쁘게 전투준비에 분주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도민들도 비행장, 특공기지, 각종 지하 대피 시설 등을 구축하는 공사에 대부분 투입되었고, 수많은 몰사 공출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문헌과 현지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당시 전투준비를 위해 파놓은 100개소가 넘는 방어진지들 가운데 파괴되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 유적들도 많지만, 지하호를 중심으로 아직도 상당히 많은 전적지가 생생하게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과 해안특공기지 가운데 알뜨르 비행장을 포함한 여러 곳의 기지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제주도에 산재한 일제하 군사유적의 대체적인 윤곽을 정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작업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좀더 풍부한 자료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일본군이 남긴 전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그 보존 및 활용 대책을 수립하는 작업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작업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일본군 관련 유적은 우리에게서 점령당했다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는 과거를 말해주는 부끄러운 상징에 지나지 않았다. 때문에 일본제국 주위에 저항하며 싸웠던 의병과 독립군들의 유적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존해온 반면, 일본군 관련 전쟁유적은 대부분 의도적으로 파괴되거나, 방치되어 왔으며, 남아 있는 것들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에 밀려 조사도 되지 않은 채,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

일본군 전쟁 유적은 무조건 파괴하여 없애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중요한 부분을 조사, 보존하여야 이를 통해 일본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전쟁을 벌였던 역사를 되돌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유적을 통해서 과거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서 벌어졌던 전투를 상상할 수 있으며, 나아가 전쟁이 지닌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전쟁유적은 역사 속의 전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매개물인 셈이다. 전쟁의 불가피함을 강조하고, 전쟁을 통한 침략과 정복을 정당화하려는 시각에서 보면, 전쟁유적은 당연히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입장에서 서더라도 전쟁유적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 전쟁의 잔학성과 비참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전쟁을 반복하지 말자고 평화를 호소하기 위한 평화학습에서도 전쟁유적은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주도의 일본군 전쟁유적지는 미래의 평화운동, 반전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 자신의 무관심 때문에 긴 세월 동안 방치되어 온 일본군들이 남겨놓은 군사시설을 지금이라도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충분히 논의할 기회를 만드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선하는 과제인 것이다. 제주도의 전적지는 현대인들에게 과거 일본군이 벌였던 전쟁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만약 제주도의 일본군 전적지를 일반에 공개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면, 과거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 평화 교육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07. 2. 9, 심사완료일 : 2007. 3. 20)

주제어 : 제주도, 전적지, 일본군, 일제말기

<ABSTRACT>

A Study on the Japanese Army and War Remains in *Jeju* at the End of the Pacific War

Cho, Sung-youn

This paper is to report the survey of the Japanese Army and war remains in *Jeju*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By doing this,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historic values of the Japanese war remains which have scattered in a lot of places in *Jeju* and obtain the basic data for establishing measures for protection and usage. The Japanese soldiers were more than 70,000 from the spring in 1945 to the unconditional surrender. Their war remains for the defense for the homeland are army and navy's airfields, anti-aircraft emplacements, trenches, training camps, shelters, tunnels, special attack units' bases, hangars, ammunition storages, etc.

I reviewed the direction and the task of the survey as follows: how many war remains are still exist, the practices of the Japanese Army who stayed in *Jeju*, the process of the construction of the military facil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Army and the *Jeju* islanders who were forced to be mobilized, the strategic values of *Jeju*, the Japanese Army's preparations for the defense for the homeland, etc.

The adopted methods for performing this included literature survey, fieldwork, the interviews with the survivors. Considering the literature survey as basic task, it is concluded that the historic study for war remains through fieldwork and the cultural anthropologic study through the interview studies with the survivors have been needed.

Especially, it is heavily focused on the interview studies which has not studied at all. When these three surveys are interwoven mechanically, its situation would appeared vividly.

Key Words : *Jejudo*, War Remains, Japanese Army, The End of the Pacific War